

제 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노동·사회 담당 기자
발 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발송일시	2026년 2월 19일(목)
문 의	010-4538-0051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3260-1942 조혜연(김용균재단)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신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촉구한다!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용균재단 조혜연
- 발언
 - 1. 여는 발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 2.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 -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간사 송기훈 목사 - 연대의 이야기
 - 5.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정은희 - 5년 중 1년 파업, 여성노동자의 투쟁
 - 6.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김유경 회장 - 수습을 두겠다는 것의 문제
 - 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 당장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라

건강보험고객센터의 투쟁은, 시혜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권리찾기를 택한 투쟁이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한 투쟁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 투쟁을 응원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던 2021년 7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파업 투쟁에 연대했다. 2021년 10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서 ‘소속기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고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은 진전된다는 점에서, 이 투쟁에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도 그 결과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속기관 전환이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자 했던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라고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입사년도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시험을 강요하거나 총 전환 인원을 줄이는 등 소속기관 전환에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며 시간을 끌어왔다. 노동자들은 그 때마다 파업투쟁을 하면서 조금씩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이주상담사 배제와 수습기간을 두는 조항 등, 문제가 있는 조항을 다시 들이밀면서 전환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주상담사를 소속기관 전환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고, 오랫동안 이주민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온 이주상담사를 소속기관 전환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 수습기간을 두고 연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10년 넘게 상담을 해온 상담사들의 역량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왜 공단은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공단이 소속기관 전환을 시혜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속기관 전환이 과연 시혜인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규직 전환이 건보공단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해왔다. 가입자의 많은 정보를 다루면서 그것을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 자체가 공공성의 훼손이었다. 건강보험에 대해 상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외주화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또한 상담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제도는 가입자가 충분히 상담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고객센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지 6년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왔듯, 이 싸움도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쉽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속기관 전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이다.

2026년 2월 19일

the삶, 경기이주평등연대, 공공운수노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음성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김용균재단,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이짓, 서울교통공사현장동지회,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지회, 성요셉노동자의집, 손잡고,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수원이주민센터, 아카데미의 친구들, 영등포산업선교회, 원주 노동공제회 원동력, 이주민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플랫폼C,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언문] - 발언2. 공공운수노조 염길용 위원장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밥을 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힘을 모으고 투쟁해서 조속히 약속을 이행시키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아플 때, 다쳤을 때, 생계가 위협받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베풀목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국민을 직접 응대하는 이들이 바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단의 필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외주용역 구조속에 묶여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차별받는 현실,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모습입니까?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과 원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길입니다.

간접고용 구조는 책임을 외주화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의 불안정, 서비스의 질 저하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되돌아옵니다. 공공서비스는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의 영역입니다.

2021년부터 투쟁 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 전환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속을 지키라고 파업 등 온갖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이행 촉구를 하고 투쟁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사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분명히 밝힙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면이 계속된다면 더 큰 연대와 더 강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일은 노동자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공기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고용으로 답해야 합니다. 차별없는 공공기관,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문] - 발언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과거 기록들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분명 저의 기억 어딘가에도 원주에서 투쟁하던 동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내던 기억이, 원주에 다녀오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6년째, 제대로 된 합의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다시 누군가 곡기를 끊고 거리에 앉아야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수년, 많게는 20여년의 시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노동자들의 연차를 초기화하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노동자가 어디있겠습니까. 한술 더 떠서 3개월 수습기간까지 두겠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의 지난 시간을 모욕하는 처사만 남는 요구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을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이주민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문제적입니다.

이 같은 한국정부의 이주민 노동자 차별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성평등가족부, 당시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운영중이던 전국의 다문화센터에서는 이주여성만을 고용하는 통번역과 이중언어코치 직무에 대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 승진의 기회에서 완전 배제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의 특성상 이들의 업무는 센터 운영의 핵심임에도 말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이주민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주민들이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이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은 흑자입니다. 의료혜택을 받기보다 납부하는 돈이 더 많은 것입니다. 국내 이주민 인구가 200만이 넘은지는 한참이고 이제 300만을 향해가는 지금, 외국어 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의 직무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직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몇 년 전 다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이주민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배제가 기본인 한국정부의 태도, 이제는 바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명백한 차별 이제는 좀 그만둡시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설, 이런 메세지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 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간 약속의 이행을 팽개친 불의와 20년의 경력을 인정 않겠다는 부당함을 철폐하고 이주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

되지 않는 제대로 된 세상을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6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단식과 농성에 나섰습니다. 공단과 정부는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발언문] - 발언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간사 송기훈 목사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단식으로 이 싸움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신 김금영 지부장님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 분들은 가족과 따뜻한 식탁을 나누는 대신, 차가운 거리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 해를 맞이하셨습니다. 명절조차 미룬 채 이어온 이 투쟁의 시간은, 이것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명과 존엄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합의된 소속기관 방식의 정규직 전환. 그것은 누군가의 특혜가 아니라, 공공부문이 스스로 밝힌 책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책의 지연이 아니라 책임의 방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상담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동지 여러분의 노동을 공단의 목소리와 얼굴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은 일시적이거나 주변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단의 상시·지속적인 핵심 기능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공공의 책임을 수행해 온 노동이라면 그 책임 또한 공공이 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동자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름과 공공의 책임 사이에 모순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이는 상식에도,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공단이 내세운 이른바 전환안의 내용입니다. 20년 가까이 일해 온 경력자의 연차를 지우고 다시 ‘수습’을 말하는 것, 1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외국인·재외국민 상담노동자들을 국적을 이유로 배제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정적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정의 조건을 덧씌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규직 전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약속된 전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건부 전환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을 온전히 이행하려는 책임 있는 결정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며 곡기를 끊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식은 요구의 확대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건강을 잃기 전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는 어제인 2월 18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순절은 개인의 경건에 머무는 시간을 넘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미루어진 책임을 감당하라는 요청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노동자를 위해 이미 합의된 전환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 조건을 덧붙여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일 것입니다. 약속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행될 때에야 비로소 신뢰가 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책임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상식과 신뢰가 회복되는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공동체도 그 길에 함께 서겠습니다.

[발언문] - 발언5.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정은희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의 시대를 여성과 성소수자가 앞장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의 60%가 노동자인 현실, 다시 말해 여성 다수가 일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결정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며,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보다 131만 명이나 많습니다. 최근 남성 비정규직은 1.0% 감소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오히려 1.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 다수는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사회가 외면해 온 출산과 육아를 오롯이 떠맡은 여성 노동자들은 경력이 단절된 채, 다시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내몰립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간접고용이 구조화된 한국 사회에서 하청업체들은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그렇게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낮은 복지라는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차별을 감내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가 평균 3명 중 1명이라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는 5명 중 3명에 이를 만큼 성적 괴롭힘의 위험 또한 훨씬 큽니다.

이 문제는 일부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다수 여성 노동자의 일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입니다. 건보 상담노동자들은 하루 1천여 건에 달하는 문의를 처리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2년마다 재계약의 불안을 견뎌야 합니다. 상시적인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콜 수 경쟁에 내몰려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그 결과 방광염이나 생리불순 등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노노갈등만을 부추겼던 사측 뒤에 숨어 끝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러한 정당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 중 1년 가까이를 파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인간답게 살 권리다를 요구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성차별적 노동구조를 깨는 첫걸음입니다. 여성의 노동을 ‘저숙련·저임금’으로 낙인찍고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해 온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성과 성소수자가 최전선에서 싸운 광장의 힘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허물겠다면,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분명 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빵과장미는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투쟁.

[발언문] - 발언6.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김유경 회장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부장님의 무기한 단식 농성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투쟁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수많은 투쟁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투쟁이 벌써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미 2021년에 사측이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 놓고 그 긴 시간 동안 각종 조건을 내세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노동자들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았을 때,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을 수없이 목도해야 했습니다. 자회사를 만들고, 기존 정규직과의 신분상 차별을 공고히 하고, 전환 과정에서 사람을 잘라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십 년 넘게 일한 전문 상담사들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사측은 그 이유가 ‘새로 조직에 편입되어 계속 일하려면 업무 적응력과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은 일종의 채용 절차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공 영역 업무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

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지속적인 업무에 오래 종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기관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일할 것이 분명한 노동자들은, 마땅히 정규직으로서 계속 근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때 업무 적합성과 조직 적응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취지와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해온 상담사들의 근속기간, 경력, 숙련도,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사측이 내세운 수습 기간은 정규직 전환을 미루기 위한 꼼수이자 오로지 노동자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또한 공단의 이같은 주장은 마치 정규직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 외에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측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연차를 리셋하겠다, 차등성과급제는 유지하겠다, 아주민상담사들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온갖 조건을 걸고 노골적으로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측은 지금이라도 그 의도가 뻔한 조건들을 철회하고 조건없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7일, 명동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중행동 이후 혹한의 날씨 속에 많은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이곳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외쳤던 구호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또다시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곡기를 끊고, 농성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이 벌써 6년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앞세워 전환 약속을 어기고 몽니 부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본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제자리를 찾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 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단식이 더 길어지기 전에, 말뿐이 아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문] - 발언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여러분, 저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지부장 김금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조단식으로 연대해 주고 계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시작한 단식이 오늘로 9일차입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요구

는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년을 싸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믿었고, 정부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여전히 현장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합니다. 전환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시혜가 아닙니다.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보공단 고객센터에 입사할 때 3,000페이지가 넘는 매뉴얼과 규정을 공부했고, 시험을 통과해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개월, 많게는 20년 동안 국민의 건강보험 제도와 민원을 책임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상담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전환이 된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또다시 수습을 말합니까. 이미 검증된 노동자에게 다시 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경력을 부정하고 전문성을 펼훼하는 일입니다.

연차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변경될 때에도 연차를 승계 받아 왔습니다. 고용의 형식이 바뀌어도 노동의 연속성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단절하겠다는 것은 전환을 명분으로 한 권리의 후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이미 수십 년을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숙련된 상담노동자로서 공단 업무를 함께 책임져 온 동료들입니다. 전환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공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수습임용 문제, 연차 미승계 문제, 외국인 고용 배제 문제. 이것이 쟁점이라고 부를 사안은 맞습니까?. 근로조건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놓고 현장에서는 기본권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모범적 사용자가 맞습니까? 말로는 공공성,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하십시오. 전환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라면 고용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십시오. 차별 없는 고용, 경력을 존중하는 고용, 기본을 지키는 고용이 출발점입니다.

상담노동이 바로 서야 국민이 온전한 알 권리가 바로 섭니다. 공공기관의 현장이 무너지면 전 국민의 공공성도 무너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약속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이 단식은 개인의 결기가 아니라 6년을 기다려온 상담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다해,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투쟁!